

영 결 사

가산당(伽山堂) 지관대종사(智冠大宗師)님!

오늘 이곳 범보종찰 해인사는 큰스님을 여윈 큰 슬픔에 깊은 적막에 잠겨 있습니다. 불과 세 해 전까지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아 종단의 자존을 세우시고, 소임을 놓으시면서 이제 평생의 원력인 대사림 불사에 매진할 수 있어서 기쁘시다며 천진한 미소로 조계사 마당을 나서셨는데 오늘 이렇게 세연을 접으시니 저희 후학들은 비탄의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지관 큰스님!

역사 속에 겹겹이 쌓여 있던 한국불교사의 지층들을 날날이 풀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면목을 바로 세워주신 종장이셨기에 오늘을 장엄하는 수많은 추모와 헌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스님의 혜안으로 일천년 동안 잠겨 있던 보장(寶藏)의 빛장을 열었으니, 고승들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우리 삶에 녹아 있는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 둘 제 뜻을 바로 찾아가, 모든 후학과 중생들이 아무리 보물을 꺼내어도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평소 출가 사문이 된다는 것은 공중(公衆)에게 사사로운 나를 버리고 공공의 정신과 요익을 위해 살겠다는 일생의 큰 약속이라 강조하셨기에, 언제나 너그러운 미소로 대중을 제접하셨지만 종단의 자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십만의 불교도를 광장에 모아 불자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범불교대회를 개최하셨고, 출가자들에게는 공의의 전통을 계승하도록 포살과 결계의식을 엄격히 하셨습니다. 또한 종조를 선양하는 일에도 매진하셔서 조계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가한 청복(淸福)을 마다하고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삼장교해(三藏敎海)와 선조들이 남겨 놓으신 한국불교 일천 칠백 년 자료들을 작업장 삼아 촌음을 아끼셨으니, 그 결과물인 ‘가산불교대사림’과 ‘역대고승비문’을 비롯한 수많은 저서들은 큰스님께서 남기신 문자사리로 공경하겠습니다.

공중(公衆)에게 언약한 평생의 원력으로 삼아 ‘가산불교대사림’에 오롯이 매진하다 손수 마지막 장을 넘기시지 못하시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어찌 스님의 심정만 하겠습니까. ‘후인들이 전인난(前人難)을 어찌 알리오’라고 탄식하신 바를 알기에, 이제 저희 후학들이 계승하여 반드시 완성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가산당 지관 큰스님!

필생의 원력으로 삼학을 두루 섭렵하시며 후학과 중생들을 위하시더니, 이제 모든 것을 놓으시고 한가한 경지에서 편안하십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아래 함께 타는 배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무봉탑(無縫塔)을 만들어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한중생도 남아있어 성불 못하면 영원토록 정각도를 취치않으리!’라고 발원하셨으니 이 사바로 돌아오시어 한중생도 남김없이 제도하실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속히 환도중생하시어 지혜의 보장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불기2556(2012)년 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